

# 뼈를 깎아내는 인고의 고통 없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본지 김한웅 부장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13개를 포함, 총 31개의 메달을 따내 올림픽 출전사상 최고의 성적인 7위를 거양했다. 참으로 대단한 성적이다.

연일 TV를 통해 재연되는 영광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닭고기 생각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평상시 보다 올림픽 기간동안 상대적으로 닭고기가 많이 팔렸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으나 닭고기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별다른 상황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월드컵 때처럼 폭발적인 소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닭고기 소비 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기대가 커서였는지 육계가격도 그렇고 별다른 특수를 누리지 못한 아쉬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오랜 기간 동안의 불황 그리고 AI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주름을 다소나마 풀어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려움 해소는커녕 몇 일

지나지도 않아 육계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벌써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피곤함이 엄습해 온다.

우리 업계는 언제나 육계가격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고 욕심을 부리지만 앓는다면 지금과 같은 걱정은 안 해도 될텐데 무엇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지금 우리 업계에는 2곳의 계열화 사업체가 사실상 사업을 접은 상태이다. 이 두 업체의 물량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이론상으로만 본다면 분명 현재와 같은 불황이 와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육계가격은 이미 크게 떨어져 kg당 1,200원선을 맴돌고 있다. 급등한 사료가격의 영향으로 생산비는 kg당 1,500원 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가 찬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해결될 조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두 곳의 계열화 사업체가 없어진 것을 감안하고 그 영역만큼 누군가가 사육물량을 크게 늘렸고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 특수라도 충분히 누렸으면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감춰졌을텐데 불행하게도 올림픽으로 인한 닭고기 소비가 이를 커버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오랜 가뭄 끝에 잠깐 맛보았던 여름 복(伏) 대목의 달콤함도 이제는 접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무더위로 인해 3달 정도 이익을 남겼던 것을 고스란히 손해를 만회하는데 쏟아 부어야 할 판세이다.

더욱이 우리 업계는 유류비라는 무서운 복병을 뒤에 두고 사실상 무방비에 노출돼 있다. 전체 농가의 30%를 제외하곤 현재 계열화 사업체가 보조해주는 유류비로 동절기 닭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원가도 kg당 1,900원 선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동절기에 육계를 사육하지 않겠다는 농가마저 생겨날 판이다.

그렇다고 계열화 사업체가 아무런 보장 없이 유류비를 지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

육계가격이 끝없는 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고민도 해보지만 뚜렷한 방법도 없다.

정부쪽을 기웃거리려도 보지만 역시 해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육계사육농가, 육계 계열화 사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해결해야 한다.

생산원가를 닭고기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지, 아니면 사육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우리 업계 관계자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대목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닭고기 업계가 스스로 뼈를 깎아내는 인고의 고통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